

공격적 조세회피와 명성비용*

박시훈** · 김갑순***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에서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조세회피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명성비용은 일반 대중이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회사가 부담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일반 대중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로 여겨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즉 공격적 조세회피는 명성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얻는 효익과 명성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명성을 가진 기업은 명성비용으로 인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10개의 종류의 ETR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명성비용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산업별 기업 이미지 조사 1위 기업과 브랜드스탁 선정 100대 브랜드 제품 보유 기업, 코스피 200에 편입 기업,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 상위 50위 기업을 명성비용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0대 브랜드 제품 보유 기업과 코스피 200 편입 기업, 경제정의지수 상위 50위 기업에서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유의한 음(-)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성이 높은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단, 본 연구에 사용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 중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명성비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와 명성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여 비조세비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

〈주제어〉 공격적 조세회피, 유효세율의 감소분, 비조세비용, 명성비용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지도 교수 김갑순 교수님, 심사위원이신 남혜정 교수님, 조광희 교수님, 숙명여대 박종성 교수님 및 숭실대학교 전규안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psh82@dongguk.edu, 주저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ks@dongguk.edu,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4일

I. 서 론

세무회계 분야에서 조세회피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관한 실증연구는 다양한 조세회피의 정의와 측정치를 통해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의 결정요인 및 조세회피의 결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의 정의는 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위법행위인 조세포탈과 법률의 남용행위인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조세절약(절세), 정책 목적의 조세혜택을 모두 포함한다(Slemrod 2004 ; Dyreng et al. 2008 ; Hanlon and Heitzman 2010 etc).

그러나 명시적 세부담의 감소로 정의된 조세회피는 세금계획의 구성을 일관되게 해석하기에는 개념상 넓은 범위를 포함하여 조세회피와 공격적 조세회피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세부담을 낮추는 모든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절세와 조세혜택의 반대쪽에 있는 의도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활동을 공격적 조세회피(tax aggressive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세회피의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였다(Chen et al. 2010 ; Balakrishnan et al. 2012 ; Lisowsky et al. 2013 ; Donohoe and Knechel 2014).

조세회피와 공격적 조세회피의 개념적인 분리는 합법적이고 명백한 세금 감면조치를 제외하여 분석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확률이 높은 거래 또는 행위로)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은 높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세율이 반영되어) 낮은 조세회피 수준을 보이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Tax shelter와 같은 위험한 거래에 관여하여 세부담을 낮추었으나, 그 외에는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는 기업보다 낮은 조세회피 수준을 보이는 경우를 식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책 입안자와 과세당국은 세금 체계에 불리한 세금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세부담을 감소시킨다. 세부담의 감소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향상시키며 이는 현금이 필요하고 외부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정적으로 제약이 있는 기업의 내부 자금공급원으로 특히 유용할 수 있다(Edwards, Shwab and Shevlin 2013). 그러나 공격적 조세회피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며, 일반 대중들에게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기업의 명성을 훼손시키며 다양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격적 조세회피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 및 컨설팅을 위한 비용, 공격적 조세회피의 이행을 위한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을 포함한 명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관련 비용 외에도 공격적 조세회피에 수반되는 상당한 비조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 공격적 조세회피를 감지하고 추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험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해 명성이 훼손되어 발생하는 명성비용과 정치적 영향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조세비용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 부담 감소액을 실질적으로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을 결정할 때 공격적 조세회피의 한계비용과 한계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Graham et al.(2014)은 기업의 조세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내부의사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은 “조세회피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이며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의 69.5%는 회사의 명성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조세회피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57.6%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한 위험이라고 답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기업들이 명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조세회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조세회피를 포기하는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인 일반 대중과 거래하는 소매업종에 속한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에게 부도덕한 기업으로 여겨질 경우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좀 더 세분화 된 공격적 조세회피의 개념에서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공격적 조세회피가 일반 대중들에게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져 명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높은 명성을 가진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명성비용이 명시적 세 부담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세 부담 수준이 아닌 보다 위험이 높은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명성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모형설계 및 변수 측정, 표본선정근거를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기술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

1. 공격적 조세회피의 정의

Hanlon and Heitzman(2010)에서는 세무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검토하며 조세회피를 소득 당 지불된 세금의 회피로 정의하였다.¹⁾ 그들은 조세회피와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하여 만약 기업의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연속체(continuum)로 나타냈을 때 합법적인 세무관리 전략이 한쪽 끝

1) Hanlon and Heitzman(2010) defined “tax avoidance as the avoidance of cash taxes paid per dollar of income”

에 있으면 조세불응(noncompliance), 조세탈세(evasion),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ness) 또는 조세혜택거래(tax shelters) 등은 다른 반대쪽 끝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의 세무관리 활동(tax planning activity)이나 조세전략(tax strategy) 등의 세부담의 감소를 위한 행위가 공격적인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격성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의미에 대한 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의 대부분의 관심이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Hanlon and Heitzman(2010)은 조세회피의 정의를 Dyreng et al.(2008)와 동일하게 세부담을 경감하는 일련의 기업행위로 간주하는 포괄적인 조세회피 정의를 취하였다.

그러나 Hanlon and Heitzman(2010)에서 언급한 조세회피의 연속체 중 합법적인 조세전략의 반대쪽 끝에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연구자마다 다소의 정의상 차이를 가지고 공격적 조세회피라는 용어를 통해 포괄적 조세회피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Frank et al.(2009)은 “탈세로 간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세무 계획을 통한 과세 소득의 하향 조작”을 공격적 조세회피로 정의하였다²⁾. Chen et al.(2010)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세무계획 활동을 통해 과세대상소득의 하향관리로 정의하며 불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거나 회색영역(gray area)³⁾에 해당될 수 있는 세금계획 활동을 포함하여 Frank et al.(2009)의 정의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였다.⁴⁾ Guenther et al.(2017)은 공격적 조세회피의 정의를 기업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부인될 행위를 취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공제를 가속화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는 경우 기업의 세율을 낮추지만 합법적인 행위로 조세회피에는 포함 되지만 공격적 조세회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기업이 과세당국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추었다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보았다.

2) Frank et al. 2009, 468 aggressive tax reporting as downward manipulation of taxable income through tax planning that may or may not be considered fraudulent tax evasion. Thus, our definitions of aggressive reporting imply fraudulent reporting as well as uncertain reporting positions. Frank et al.(2009)에서는 조세회피(tax avoidance)라는 용어 대신 aggressive tax repor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회색영역(gray area)은 조세회피의 합법성과 불법성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을 뜻한다.

4) Chen et al. 2010, 41 we define tax aggressiveness as downward management of taxable income through tax planning activities. Tax aggressiveness in our paper encompasses tax planning activities that are legal, or that may fall into the gray area, as well as activities that are illegal. Thus, tax aggressive activities do not necessarily indicate that the firm has done anything improper. Further, we use the term tax aggressiveness throughout the paper but the term can be used interchangeably with tax avoidance and tax management. Chen et al.(2010)에서는 tax aggressiveness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만 이 용어는 조세회피(tax avoidance) 및 세무관리(tax management)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다.

2. 공격적 조세회피의 측정

공격적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측정치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치는 GAAP ETR 및 Cash ETR, tax shelter, UTB이다. 그 중 tax shelter와 UTB는 국내에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AAP ETR 및 Cash ETR을 기초로 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에 중점을 둔다.

GAAP 및 Cash ETR은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된다. Dyreng et al.(2008)에서 개발된 Cash ETR은 세전소득 대비 지불된 현금세금부담액의 비율이다. 공격적 조세회피를 연구하는 실증연구의 대부분은 Cash ETR을 측정치로 사용한다(Rego and Wilson 2012 ; Chen et al. 2010 ; Lennox, Lisowsky and Pittman 2013).

Balakrishnan et al.(2012)는 같은 업종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조세회피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조세회피 기회가 비슷한 회사 중에서 세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회사는 조세회피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먼저, ETR을 각 회사의 총 세금 부담에 대한 대리로 사용하여 ETR의 일시적인 연간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세전 이익의 합계에 의해 계산된 총 세금 지출의 지난 3년의 합계로 구한다. 그런 다음 각 자산의 5 분위와 같은 산업에서 규모와 산업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산업이 48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각 회사의 3년 ETR을 같은 기간의 3년 ETR로 조정한다. 업종 규모의 ETR보다 회사의 ETR이 낮다면 회사가 업계 동료들보다 적은 세금을 지불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클수록 공격적 조세회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Donohoe and Knechel(2014)은 Dyreng et al.(2008)에서 제안된 장기유효세율(long-run-ETR) 측정치를 이용하여 과거 6년간의 장기유효세율이 낮은 구간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 터미변수로 측정한 후 이를 세무공격성의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Donohoe and Knechel(2014)은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경우보다 불법적인 탈세 쪽으로 조세회피가 치우칠수록 ETR이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종일·지승민(2016)의 연구에서 공격적 조세회피를 나타내는 변수로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을 준용하여 동일 연도, 동일 산업 내에서 5년간 누적유효세율인 cash-ETR과 GAAP-ETR 그리고 CFO ETR의 5분위수 중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하는 기업을 공격적 조세회피 성향이 강한 기업으로 보았다.⁵⁾ 선우희연 외(2017)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 연도, 동일 산업 내에서 DD BTD (GAAP ETR)를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어 크기가 상위(하위)인 5분위 기업을 공격적 조세회피 기업으로 보았다.

5) Dyre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조세회피 측정치로 알려진 5년간 누적유효세율인 GAAP ETR(전통적인 유효세율) 및 CASH ETR(현금유효세율)과 Guenther et al.(2014)의 방법에 따라 CFO ETR(세전영업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측정된 유효세율)

Blouin(2014)는 공격적 조세회피는 불확실성을 가질 것으로 보아 Cash ETR의 변동성을 공격적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즉 합법적인 절세와 조세혜택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은 ETR을 유지할 수 있으나, 공격적 조세회피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ETR의 변동을 유발한다. Blouin (2014)의 연구에서는 지적 재산 수준이 높은 산업(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장비, 의약품, 벤처 등)은 여러 가지 조세혜택으로 인해 세금의 공제를 받아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은 ETR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 상당수는 ETR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낮은 ETR이 정책적인 조세혜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박시훈·김갑순(2019)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수준을 ETR의 수준이 아닌 일정 기간의 ETR의 감소분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ETR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과거기간보다 낮아진 ETR은 공격적 조세회피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3. 비조세비용과 공격적 조세회피

기업의 경영자는 잠재적인 비용과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혜택을 평가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하여 얻는 세 부담의 감소보다 조세회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조세비용이 클 경우 조세회피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격적 조세회피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성비용은 공격적 조세회피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조세비용 중 하나일 것이며, 명성비용이 클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Scholes et al. 2014).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통해 입법상 모호한 부분을 악용하여 세금의 공평한 분담을 피하는 것으로 보일 때 사회적 평가로 인해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2012년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많은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대중매체에서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며, 스타벅스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는 유튜브 운영법인인 ‘보람패밀리’는 국내 1위 유튜버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높은 명성과 고수익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많은 광고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비하여 납세의 규모가 상당히 낮아 과세당국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위험이 커졌다. ‘보람패밀리’는 세무조사 위험과 명성훼손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경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⁶⁾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패밀리의 경우 대중들의 인기 정도에 따라서 광고수익이 달라지며, 명성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이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익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대중에게 알려질 경우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져 명성이 훼손될 수 있으

6) 年300억 번 ‘보람튜브’ 내사하고 ... 허 찔린 국세청 (머니투데이 2020.05.25.)

며 명성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Dyrenge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많은 미국의 많은 기업이 세전소득이 있으나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으며, 거의 동일한 수의 기업이 평균 세전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부의 기업은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반면 다른 일부의 기업은 조세회피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조세회피의 효익은 세부담의 감소분으로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비조세비용이 큰 경우,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명성비용은 기업의 명성의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이다. 소비자의 평판 정도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명성의 훼손 정도가 클 것이며 공격적 조세회피로 얻는 효익보다 명성의 훼손으로 인한 비용이 크다면 그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지 않을 것이다.

Hanlon and Slemrod(2009)는 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평균적으로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소매업종의 기업의 주가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조세회피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Graham et al.(2014)은 세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회사의 명성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조세회피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회사가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다고 생각하는 임원은 다른 회사에 비해 기업의 명성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Nguyen(2015)은 제품시장 광고에 대한 회사의 투자가 세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광고 집약적인 기업들이 세금 공격성이 낮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며 기업이 평판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 시장에서 광고로 인한 명성자산이 가치 있고 명성훼손에 대한 우려가 공격적 조세회피에 참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Austin and Wilson(2017)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성훼손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들이 기업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 낮은 수준의 조세회피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ET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ax shelter 거래 여부의 추정점수와의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인 명성비용에 대한 우려가 기업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람 · 이정미(2014)는 조세회피와 기업의 명성 및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KMAC의 발표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1위 기업을 명성이 좋은 기업으로, 그 외의 기업을 명성이 낮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와 명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명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됨을 발견하였다.

김임현·김진수(2019)에서는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브랜드가치는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를 나타내는 BSTI(Brandstock Top Index)를 이용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명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에 소극적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명성비용의 측정치를 이용 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의 조세회피수준이 아닌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하여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갖는다.

4. 연구 가설

명성비용은 일반 대중이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회사가 부담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형성된다.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대중들은 공격적 조세회피를 비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격적 조세회피는 대중들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기업의 다양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Scholes et al. 2014). 특히 명성이 높은 기업은 대중에게 익숙한 기업이므로 공격적 조세회피에 관한 내용이 대중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올 것이다(Nguyen 2015).

Graham et al.(2014)이 기업의 조세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명성훼손에 대한 우려가 조세회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조세회피를 포기하는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인 일반 대중과 거래하는 소매업종에 속한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에게 부도덕한 기업으로 여겨질 경우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Akdogu and MacKay(2012)는 높은 시장지배력은 조세회피 전략의 실패 시 받을 경제적인 타격을 줄여 주어 조세회피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세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Kubick et al.(2015)는 공격적 조세회피는 미래과세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며 과세당국에 적발될 경우 벌금 및 추가적인 비용 또는 기업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높은 명성을 가진 기업들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명성비용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클 것이다. 명성이 높은 기업에서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중매체의 과도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불매운동과 기업 명성의 하락 등 높은 명성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Christensen et al. 2014). 따라서 명성이 높은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성비용을 고려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을 낮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 기업의 명성비용이 클수록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및 표본 선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제인 비조세비용인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모형(1)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AXAGG_{i,t} = & \alpha_0 + \beta_1 REPUTATION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

<Dependent variable>

TAXAGG =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 : 4가지 유형, 10종류
[1 유형]

$Long_cash(GAAP)_ETR_{i,t} = \sum_{t=1}^5 \text{세전이익}_{i,t} / \sum_{t=1}^5 \text{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_{i,t}$

[2 유형]

$Adj_cash(GAAP)_ETR$ = 산업 · 규모 조정 3년 Long cash(GAAP) ETR

[3 유형]

$CDETR(GDETR)_{i,t} = (\text{cash(GAAP) ETR}_{i,t-1} - \text{cash(GAAP) ETR}_{i,t})$
- [산업별 · 규모별 $\Delta \text{cash(GAAP)ETR}$ 의 평균값]

[4 유형]

$dum_cash(GAAP)_ETR_{i,t}$ = Long cash(GAAP)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quintile) 중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dum_CDETR(GDETR)_{i,t}$ = CDETR(GD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quintile) 중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Independent variable>

REPUTATION = 명성비용 : 4종류

REP1 = 산업별 1위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REP2 = 100대 브랜드에 속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REP3 = KOSPI 200에 편입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REP4 =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가 상위 50위인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Control variable>

SIZE = i기업의 t-1기 대비 t기의 기업규모 (=ln(총자산))

LEV = i기업의 t-1기 대비 t기의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GRW = i기업의 t-1기 대비 t기의 매출액 성장률 ($=\text{매출액}_t - \text{매출액}_{t-1} / \text{매출액}_{t-1}$)
 ROA = i기업의 t-1기 대비 t기의 총자산이익률 ($=\text{세전이익} / \text{기초총자산}$)
 PPE = i기업의 t-1기 대비 t기의 (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 자산)/총자산
 $INTAN$ = i기업의 t-1기 대비 t기의 무형자산/총자산
 $FSALE$ = i기업의 t-1기 대비 t기의 수출비중
 PCM = i기업의 t년도 시장지배력 ($=t-1\text{년도}(\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text{판매비와 관리비}) / \text{매출액}$
 $\quad - \text{산업평균}(\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text{판매비와 관리비}) / \text{매출액}$)
 IND = 산업 더미
 $YEAY$ = 연도 더미

모형(1)에서 종속변수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나타내는 TAXAGG로 변수의 측정은 4가지 유형의 총 10종류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관심변수는 명성이 높은 기업을 나타내는 REPUTATION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REPUTATION의 계수인 β_1 이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명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명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기업특성 차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명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기업특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법(P propensity Score Matching : PSM)을 활용하였다. 명성이 높은 기업과 유사한 기업특성을 가진 기업 중 명성이 높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특성을 가진 기업이 명성이 높은 기업으로 선정될 확률로 성향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관측치(nearest neighbor)를 비교대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을 매칭하였다. 매칭표본은 3배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공격적 조세회피

공격적 조세회피는 절세 및 조세혜택을 제외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확률이 높은 조세회피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네 가지 유형의 10개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Dyreng et al.(2008)의 방법으로 측정한 측정치로 Long_cash_ETR과 Long_GAAP_ETR이다. Long_cash_ETR은 지난 5년간의 법인세납부액(법인세비용)의 합계액에서 지난 5년간의 세전이익 합계액을 나눈 값으로 구하였으며 Long_GAAP_ETR은 지난 5년간의 법인세비용의 합계액에서 지난 5년간의 세전이익 합계액을 나눈 값으로 구하였다.⁷⁾

7)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각 변수에 (-1)을 곱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Balakrishnan et al.(2012)의 방법으로 측정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 산업·규모 조정 ETR이다. Balakrishnan et al.(2012)에서는 지난 3년간의 세전 이익의 합계액 대비 지난 3년의 총 세금지출합계액으로 3년 누적 cash_ETR을 구한 뒤, 48개 산업을 기반으로 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하여 동일 산업에서 같은 분위의 자산에 속하는 기업의 평균 3년 누적 cash_ETR 구하여 개별기업의 3년 누적 cash_ETR에서 산업규모 평균값을 차감한 값으로 Adj_cash_ETR을 계산하였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dj_cash_ETR_{i,t} = 3년\ 누적\ cash_ETR_{i,t} - (산업별 \cdot 규모별\ 3년\ 누적\ cash_ETR의\ 평균) \quad \text{식(1)}$$

Adj_GAAP_ETR의 경우는 지난 3년간의 세전 이익의 합계액 대비 지난 3년의 총 법인세비용 합계액으로 구한 3년 누적 GAAP_ETR을 Adj_cash_ETR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세 번째 유형은 박시훈·김갑순(2019)에서의 방법을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의 측정치인 DETR이다. DETR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먼저 식 (2)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ETR의 감소분을 계산하였다. 기업의 ETR의 감소분은 합법적인 절세 및 조세혜택이 지속적이라고 가정하며 합법적인 절세 및 조세혜택은 전기와 당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박시훈·김갑순(2019)에서는 전기 대비 ETR의 감소분을 개별기업의 지속적인 절세 및 조세혜택이 아닌 추가적으로 기업이 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가 반영된 값으로 보았다.

$$\Delta ETR_{i,t} = ETR_{i,t-n} - ETR_{i,t} \quad \text{식(2)}$$

다음으로 산업별 조세혜택에 차이를 가져오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조세회피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별기업의 DETR에서 연도별로 산업별·규모별⁹⁾ DETR의 평균값을 차감한 값으로 산업·규모조정 DETR을 계산하였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ETR_{i,t} = \Delta ETR_{i,t} - (산업별 \cdot 규모별\ \Delta ETR의\ 평균) \quad \text{식(3)}$$

따라서 DETR은 산업·규모의 효과를 통제한 ETR의 감소분이다. Cash ETR로 측정한 DETR은 CDETR로 표기하며, GAAP ETR로 측정한 DETR은 GDETR로 표기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으로 Long_cash_ETR과 Long_GAAP

8) ETR은 극단치의 영향과 초과누진세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억 원 이하인 기업은 제거 하였고, ETR이 0과 1을 벗어나는 값의 경우 [0과 1]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9) 동일 연도 산업 내의 기업을 자산규모별로 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평균값을 구한다.

_ETR, CDETR 그리고 GDETR을 기준으로 표본을 5분위수(quintile)로 나눈 후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한 집단을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dum_cash_ETR, dum_GAAP_ETR, dum_CDETR, dum_GDETR).

나. 명성비용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명성이 높은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였을 경우 명성훼손으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4가지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명성이 높은 기업을 관심변수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표하는 기업 명성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명성비용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2001년부터 한국 산업별 기업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여 순위를 발표했으며 2004년부터 미국 Fortune지의 조사방법을 검토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가미한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발표하였다. 한국적인 상황을 가미한 조사방법은 미국 Fortune지 조사모형에서 한국 상황에 맞게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을 조정하였으며, 회사 경영진 및 이사진과 재무분석가를 조사대상으로 한 미국 Fortune지와 달리 한국의 경우 경영진과 재무분석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 Fortune지의 설문 조사항목 중 하나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효율성(effectiveness in doing business globally)은 다국적 기업을 많이 소유한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이 거의 없어 제외하였으며 다른 모든 항목은 한국의 존경받는 기업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개발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조사방법이 미국 Fortune지의 방법과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최보람·이정미(2014)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이 기업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명성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한 존경받는 산업별 1위 기업을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산업별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방법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¹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 산업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1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명성비용이 높은 기업의 개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명성비용의 측정치인 REPI¹⁾로 사용하였다. 산업별 기업이미지가 가장 높은 기업에 선정이 된 기업은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거나 언론에 언급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명성의 훼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여 명성이 높은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두 번째 측정치는 브랜드스탁에서 선정하는 100대 브랜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명성이 높은

1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KMAC : KOREA'S Most Admired Companies)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홈페이지인 <http://www.kmac.co.kr>에서 이용 가능하며 직접 문의를 통하여 자료사용의 동의를 얻었다.

기업으로 측정하였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를 나타내는 BSTI(Brandstock Top Index)¹¹⁾를 이용하여 100대 브랜드에 속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REP2)로 측정하였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스탁이 개발한 BSTI모형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년 말 BSTI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이 선정 발표된다. BSTI 모형은 약 5만 명의 검증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조사항목으로 산출된 소비자 조사지수와 브랜드 증권거래소에서 생성되는 브랜드 주가지수를 결합하여 브랜드를 평가한다. 김임현·김진수(2019)의 연구에서는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BSTI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는 코스피 200지수에 속하는 기업을 명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았다. 코스피 200은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Stock Market)의 보통주 전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거래량), 업종 대표성(업종은 9개 업종으로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즉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서열에 따른 200 종목이 해당된다. 따라서 코스피 200에 속한 기업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으며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하여 얻는 조세절감의 이익보다 명성훼손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의 명성비용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여 명성비용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코스피 200에 속하는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REP3)로 변수를 측정하였다.

네 번째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는 기업 활동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종업원 만족도 경제발전 기여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경제정의지수는 매년 상위 200개 기업의 점수를 공개하며 경제정의지수 통해 경실련 좋은 기업상을 선정한다. 경제정의지수가 높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활동에 충실한 기업이라는 명성을 갖게 되어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명성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높아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공개되는 상위 200개 기업 중 상위 50개 기업을 명성비용이 높은 기업으로 선정하여 상위 50위에 해당하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REP4) 측정하였다.

다.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우월한 조세전략으로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며(Graham and Tucker 2006 ; 김진회·정재욱 2006), 정치비용가설에 따라 기업규모가 큰 기업인 경우 내·외부 이해관계자 많고, 감사기능강화로 인해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수 있다(Beasley et al. 1999).

부채비율(LEV)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부채의 감세

11) BSTI는 브랜드스탁 홈페이지인 <http://www.brandstock.co.kr>에서 이용 가능하며 직접 문의를 통하여 자료사용의 동의를 얻었다.

효과로 인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은 감소되고, 부채비율이 낮으면,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Graham and Tucker 2006 ; 김진희 · 정재욱 2006 ; 박미영 2012). 매출액 성장률(GRW)은 매출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이며, 매출액 성장률(GRW)의 증가는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김진희 · 정재욱(2006)에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총자산세전이익률(ROA)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수익성이 증가하게 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되어 공격적 조세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Dhaliwal et al. 2000 ; 김진희 · 정재욱 2006). 유형자산비율(PPE)과 무형자산비율(INTAN)은 기업의 감가상각 기간을 조절함으로써 과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공격적 조세회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비중(FSALE)은 총매출액에서 수출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정부는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시장지배력은 산업이 조정된 개별기업의 매출에서 매출관련 비용을 차감한 총마진(price-cost margin ; 이하 PCM)으로 계산하였다(Lerner 1934 ; Peress 2010 ; Kubick et al. 2015).

3.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금융업과 보험업 이외의 산업에 속한 기업
- (2)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가 입수 가능한 기업
- (3) 12월 말 결산법인
- (4) 자본잠식 기업이 아닌 기업
- (5) 세전이익이 2억 이상인 기업

본 연구의 표본은 금융업에 속한 기업은 재무제표의 양식과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상이 하여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결산월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12월 말 결산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KIS-VALUE에서 제공되는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본잠식 기업은 표본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제외하였다.

ETR의 측정시 극단치의 조정과 초과누진세율로 인한 세율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별 세전이익이 2억 보다 큰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은 표본의 선정절차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년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극단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와 더미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상하 1%에서 조정(winsorization)을 하였으며, ETR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0과 1을 벗어나는 값은 [0, 1]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표 1〉 표본의 선정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기업의 기업-연도	31,760
12월말 결산법인 이외 법인 제거	(2,227)
자본잠식 기업 제거	(265)
세전이익이 2억 이하인 기업 제거	(8,303)
각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한 기업 제거	(7,666)
최종 표본	13,299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표본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299개 기업-연도이며 표본의 산업별 연도별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표본의 산업별·연도별 분포표

Panel A : 산업별 분류			
Industry Classification		Long Cash ETR	Percent(%)
C00000/ 제조업		10,036	75.46
G00000/ 도매 및 소매업		1,041	7.83
J00000/ 정보통신업		1,248	9.38
M0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4	7.32
Total		13,299	100.00
Panel B : 연도별 분류			
Year		DETR	Percent(%)
2003		594	4.47
2004		651	4.9
2005		738	5.55
2006		774	5.82
2007		804	6.05
2008		709	5.33
2009		699	5.26
2010		762	5.73
2011		860	6.47
2012		902	6.78
2013		881	6.62
2014		842	6.33
2015		819	6.16
2016		811	6.1
2017		824	6.2
2018		844	6.35
2019		785	5.9
Total		13,299	100.00

<표 2>에서 Panel A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KSIC) 산업별 분류에 따라 표본을 분류하였다. 산업·규모별 조정을 위해 동일산업의 연도에 10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전체표본 중 제조업이 7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업 9.38%이며, 도매 및 소매업이 7.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7.32%로 비슷한 표본수를 보인다. <표 2>의 Panel B는 연도별 표본구성을 분류한 것이다.

IV. 실증분석

1. 기술 통계량 및 상관분석

<표 3>은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식(3)의 주요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이다.

<표 3> 기술 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Dev	min	p50	max
<i>Long_cash_ETR</i>	13,299	0.188	0.122	0	0.187	1
<i>Long_GAAPETR</i>	13,299	0.192	0.108	0	0.201	1
<i>adj_cash_ETR</i>	13,299	0.021	0.12	-0.841	0.02	0.527
<i>adj_GAAP_ETR</i>	13,299	0.011	0.095	-0.841	0.003	0.408
<i>CDETR</i>	13,299	0	0.223	-1.085	0.005	1.072
<i>GDETR</i>	13,299	0	0.146	-1.005	0.004	1.023
<i>REP1</i>	13,299	0.007	0.083	0	0	1
<i>REP2</i>	13,299	0.015	0.12	0	0	1
<i>REP3</i>	13,299	0.134	0.34	0	0	1
<i>REP4</i>	13,299	0.049	0.216	0	0	1
<i>Size</i>	13,299	25.655	1.433	22.984	25.508	29.545
<i>Lev</i>	13,299	0.36	0.179	0.053	0.356	0.725
<i>GRW</i>	13,299	0.123	0.252	-0.356	0.078	1.018
<i>ROA</i>	13,299	0.107	0.092	0.007	0.08	0.436
<i>PPE</i>	13,299	0.163	0.117	0.003	0.141	0.477
<i>INTAN</i>	13,299	0.02	0.034	0	0.007	0.165
<i>FSALE</i>	13,299	0.22	0.29	0	0.049	0.942
<i>PCM</i>	13,299	0.315	1.078	-0.08	0.058	6.686

<변수정의> Long_cash_ETR=5년간 법인세부담액/5년간세전이익; Long_GAAP_ETR=5년간 법인세비용/5년간세전이익; adj_cash_ETR=산업·규모조정 3년간 누적 cash_ETR; adj_GAAP_ETR=산업·규모조정 3년간 누적 GAAP_ETR; CDETR=Cash ETR을 이용하여 측정한 DETR의 산업별·규모별 조정값; GDETR=GAAP ETR을 이용하여 측정한 DETR의 산업별·규모별 조정값; REP1=명성비용 KMAC 산업별 1위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REP2=명성비용 100대 브랜드에 속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REP3=명성비용 KOSPI 200에 신규 편입된 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REP=명성비용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Index 상위 50위권 기업; Size=기업규모($=\ln(\text{총자산})$); Lev=부채비율($=\text{총부채}/\text{총자산}$); GRW=매출액 성장률($=\text{매출액}_t - \text{매출액}_{t-1} / \text{매출액}_{t-1}$); ROA=총자산이익률($=\text{당기순이익}/\text{기초총자산}$); PPE=(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 자산)/총자산; INTAN=무형자산/총자산; FSALE=수출비중; PCM=시장지배력($=\text{기업 } t-1\text{년도}(\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text{판매비와 관리비}) / \text{매출액} - \text{산업평균}(\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text{판매비와 관리비}) / \text{매출액}$).

식(3)의 종속변수인 Long_cash_ETR의 평균은 0.188이며 Long_GAAP_ETR의 평균은 0.192이다. CDETR과 GDETR의 평균은 0.00이며 CDETR의 표준편차는 0.223로 GDETR 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 주요 관심변수인 REP1의 평균은 0.7%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한국 산업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1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그 표본의 수가 상당히 작다. REP2의 평균은 1.5%로 100대 브랜드 제품을 포함한 기업이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REP3은 KOSPI200 기업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전체표본의 0.9%에 해당한다. REP4는 경제정의 연구소의 KEJI Index의 값이 상위 50위 기업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평균은 4.9%이다. SIZE의 평균(중위수)은 25.655(25.508)으로 나타났으며, LEV의 평균(중위수)은 0.36(0.356)이다. GRW의 평균(중위수)은 0.123(0.078)로 ROA의 평균(중위수)은 0.107(0.08)로 나타났다. PPE(유형자산비중)과 INTAN(무형자산비중)의 평균은 각각 0.163과 0.020이며, FSALE(수출비중)의 평균은 0.22이다. 시장지배력의 평균(중위수)은 0.315(0.058)로 나타났다.

<표 4>는 주요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인 Long-cash-ETR, Long-GAAP-ETR는 관심변수인 REP1, 2, 3, 4와의 상관관계수 중 REP3과 REP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EP1과 REP2에서는 유의하진 않으나 방향은 기대했던 부호와 일치 하였다. Adj GAAP ETR은 REP4에서만 기대했던 음(-)의 값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CDETR와 명성비용의 대용치인 REP1부터 REP4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방향도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표 4〉 피어슨 상관분석표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Long_cash_ETR	1																	
(2) Long_GAAP_ETR	0.692***	1																
(3) adj_cash_ETR	-0.591***	-0.409***	1															
(4) adj_GAAP_ETR	-0.439***	-0.603***	0.627***	1														
(5) CDETR	-0.020**	0.008	0.018**	-0.004	1													
(6) GDETR	-0.008	-0.001	0.015*	0.003	0.338***	1												
(7) REP1	0.003	0.021**	0.009	0.01	0.006	0.007	1											
(8) REP2	0.006	0.047***	0.013	0.005	0.006	0.001	0.345***	1										
(9) REP3	0.068***	0.140***	0.003	0.003	-0.001	0	0.159***	0.245***	1									
(10) REP4	0.068***	0.104***	-0.012	-0.027***	0.005	-0.002	0.006	0.039***	0.265***	1								
(11) Size	0.126***	0.245***	0.032	0.036***	0.001	-0.006	0.202***	0.262***	0.626***	0.219***	1							
(12) Lev	0.050***	0.071***	-0.077***	-0.053***	-0.024***	-0.021**	0.019**	-0.002	0.017*	-0.024***	0.054***	1						
(13) GRW	-0.076***	-0.120***	0.037***	0.053***	0.015*	-0.031***	-0.011	-0.021**	-0.071***	-0.037***	-0.152***	0.149***	1					
(14) ROA	-0.049***	-0.067***	0.014	-0.042***	0.065***	-0.001	-0.020**	0.002	-0.072***	-0.022**	-0.254***	-0.155***	0.434***	1				
(15) PPE	-0.042***	-0.052***	0.021**	0.050***	0.002	0.004	0.022**	0.043***	0.070***	0.059***	0.026***	0.271***	0.013	-0.098***	1			
(16) INTAN	-0.104***	-0.205***	0.085***	0.129***	0.002	0.002	0.023***	0.019**	-0.058***	-0.036***	-0.108***	-0.011	0.061***	0.016*	-0.097***	1		
(17) FSALE	-0.066***	-0.061***	0.039***	0.029***	0	-0.006	-0.036***	-0.021**	0.080***	0.003	0.136***	-0.047***	-0.002	-0.009	0.050***	-0.002	1	
(18) PCM	0.079***	0.037***	0.051***	0.046***	0.001	0.003	-0.019*	-0.023***	0	0.076***	0.018**	-0.114***	-0.005	0.029***	0.008	0.069***	-0.071***	1

*** p<0.01, ** p<0.05, * p<0.1

<변수정의> Long_cash_ETR=5년간 법인세부담액/5년간세전이익; Long_GAAP_ETR=5년간 법인세비용/5년간세전이익; adj_cash_ETR=산업·규모조정 3년간 누적 cash_ETR; adj_GAAP_ETR=산업·규모조정 3년간 누적 GAAP_ETR; CDETR=Cash ETR을 이용하여 측정된 DETR의 산업별·규모별 조정값; GDETR=GAAP ETR을 이용하여 측정된 DETR의 산업별·규모별 조정값; REP1=명장비용 KMAC 산업별 1위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REP2=명장비용 100대 브랜드에 속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REP3=명장비용 KOSPI 200에 신규 편입된 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REP4=명장비용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Index 상위 50위권 기업; Size=기업규모(=ln(총자산)); Lev=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GRW=매출액 성장률(=매출액_t-매출액_{t-1})/매출액_{t-1}; ROA=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PPE=(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 자산)/총자산; INTAN=무형자산/총자산; FSALE=수출비중; PCM=시장지배력(=기업 t-1년도(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매출액).

2. 회귀분석결과

가설에 대하여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명성비용의 대용치인 REP1을 사용하기에 앞서 REP1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전체표본에 비하여 매우 작고 전체표본과 REP1에 속하는 기업 간의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다.

<표 5>는 매칭 전 명성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를 살펴보면 REP1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룹 간 통제변수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EP1에 속하는 기업에 대응하는 표본을 유사한 기업 특성을 가진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준모수적 방법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이용하였다. PSM 방식은 명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향점수를 비교하여 성향점수가 비슷한 비교집단의 관측치와 짝을 이루는 Nearest Neighbor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5〉 매칭 전 표본 평균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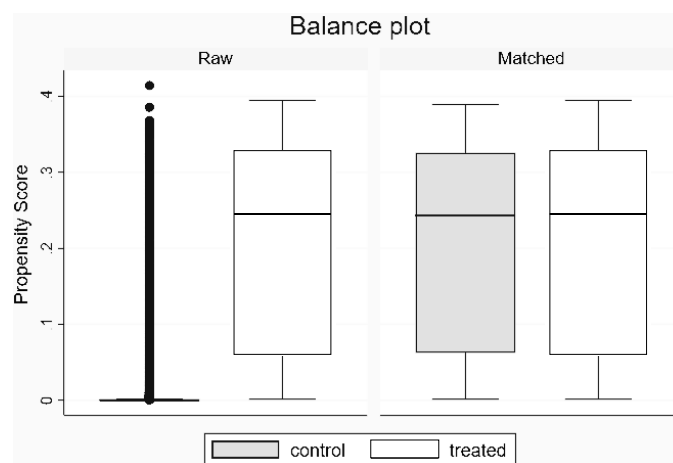
Variable	REP1=1			REP1=0			Diff
	Obs	Mean	Std.Dev	Obs	Mean	Std.Dev	T-value
Long_cash_ETR	92	0.033	0.136	13,207	0.02	0.119	-0.9093
Long_GAAP_ETR	92	0.022	0.066	13,207	0.011	0.095	-1.5887
adj_cash_ETR	92	0.192	0.111	13,207	0.188	0.122	-0.3537
adj_GAAP_ETR	92	0.219	0.05	13,207	0.192	0.108	-5.2827***
CDETR	92	0.017	0.265	13,207	0	0.223	-0.6118
GDETR	92	0.012	0.094	13,207	0	0.146	-1.1914
Size	92	29.127	0.767	13,207	25.631	1.406	-43.2390***
Lev	92	0.401	0.143	13,207	0.36	0.179	-2.7553***
GRW	92	0.09	0.192	13,207	0.123	0.252	1.6566
ROA	92	0.085	0.061	13,207	0.107	0.092	3.4822***
PPE	92	0.194	0.096	13,207	0.163	0.117	-3.1093***
INTAN	92	0.03	0.035	13,207	0.02	0.034	-2.4759**
FSALE	92	0.096	0.222	13,207	0.221	0.291	5.3444***
PCM	92	0.073	0.078	13,207	0.317	1.081	19.5776***

주) 변수의 정의는 <표 3>의 내용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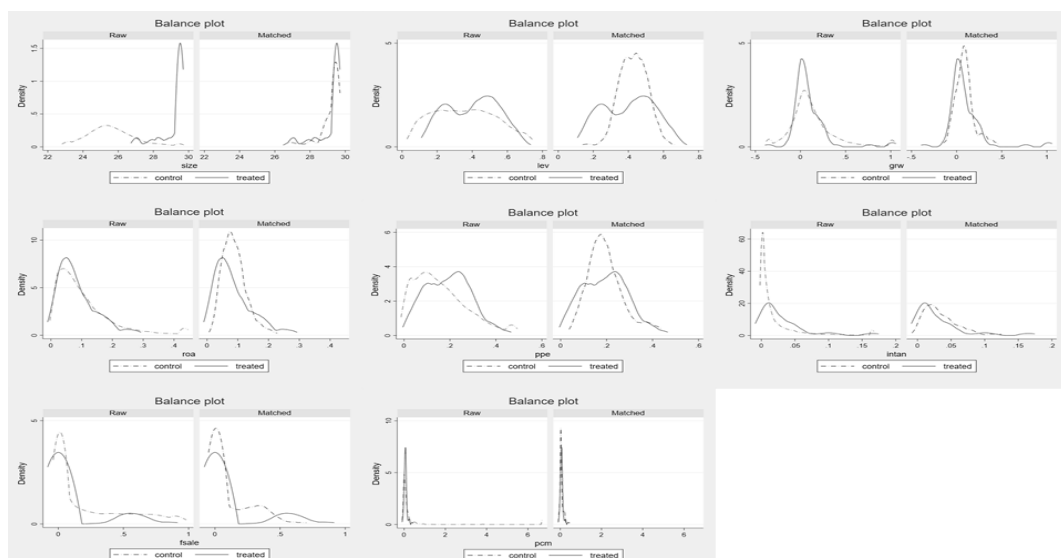
<그림 1>은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분포이며, <그림 2>는 매칭 전후 통제변수의 분포이다. <그

림 1>을 살펴보면 매칭 전에는 REP1이 1인 그룹(treated)의 성향점수의 분포와 REP1이 0인 그룹(control)의 성향점수의 분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인다. 매칭 이후에는 treated 그룹과 control 그룹의 성향점수 분포가 상당히 비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성향점수 외에 다른 통제변수의 분포도 매칭 이후 유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칭 전에는 REP1이 1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통제변수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반면 매칭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의 분포(Box plot)



<그림 2> 매칭 전후의 통제변수의 분포



<표 6>은 1 : 3으로 매칭된 표본의 기술 통계량이며, <표 7>은 매칭 후 그룹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매칭 후 표본 기술 통계량

Variable	REP1=1						REP1=0					
	Obs	Mean	Std.Dev	min	p50	max	Obs	Mean	Std.Dev	min	p50	max
Long_cash_ETR	92	0.192	0.111	0	0.203	0.634	276	0.196	0.125	0	0.193	1
Long_GAAPETR	92	0.219	0.05	0.058	0.223	0.307	276	0.224	0.087	0.013	0.236	0.628
adj_cash_ETR	92	0.033	0.136	-0.643	0.021	0.371	276	0.01	0.15	-0.729	0.016	0.343
adj_GAAP_ETR	92	0.022	0.066	-0.062	0.007	0.285	276	-0.001	0.126	-0.759	0.002	0.276
CDETR	92	0.017	0.265	-0.826	0.022	0.992	276	0.021	0.214	-0.928	0.002	0.785
GDETR	92	0.012	0.094	-0.354	0.009	0.337	276	0.009	0.132	-0.726	0.007	0.672
Size	92	29.127	0.767	26.881	29.545	29.545	276	29.119	0.707	26.549	29.545	29.545
Lev	92	0.401	0.143	0.163	0.425	0.681	276	0.429	0.155	0.053	0.422	0.725
GRW	92	0.09	0.192	-0.356	0.042	1.018	276	0.09	0.183	-0.356	0.072	1.018
ROA	92	0.085	0.061	0.009	0.063	0.273	276	0.088	0.069	0.007	0.07	0.436
PPE	92	0.194	0.096	0.03	0.198	0.43	276	0.197	0.118	0.003	0.177	0.477
INTAN	92	0.03	0.035	0	0.018	0.165	276	0.034	0.04	0	0.02	0.165
FSALE	92	0.096	0.222	0	0	0.833	276	0.099	0.209	0	0	0.942
PCM	92	0.073	0.078	-0.071	0.067	0.431	276	0.055	0.118	-0.08	0.033	0.743

주) 변수의 정의는 <표 3>의 내용과 같음

<표 7> 매칭 후 그룹 간 평균 차이 분석

Variable	REP1=1			REP1=0			Diff
	Obs	Mean	Std.Dev	Obs	Mean	Std.Dev	T-value
Long_cash_ETR	92	0.192	0.111	276	0.196	0.125	0.3238
Long_GAAPETR	92	0.219	0.05	276	0.224	0.087	0.6292
adj_cash_ETR	92	0.033	0.136	276	0.01	0.15	-1.4114
adj_GAAP_ETR	92	0.022	0.066	276	-0.001	0.126	-2.2541**
CDETR	92	0.017	0.265	276	0.021	0.214	0.1280
GDETR	92	0.012	0.094	276	0.009	0.132	-0.2601
Size	92	29.127	0.767	276	29.119	0.707	-0.0829
Lev	92	0.401	0.143	276	0.429	0.155	1.5706
GRW	92	0.09	0.192	276	0.09	0.183	0.0025
ROA	92	0.085	0.061	276	0.088	0.069	0.5079
PPE	92	0.194	0.096	276	0.197	0.118	0.2558
INTAN	92	0.03	0.035	276	0.034	0.04	1.0019
FSALE	92	0.096	0.222	276	0.099	0.209	0.1341
PCM	92	0.073	0.078	276	0.055	0.118	-1.6588

주) 변수의 정의는 <표 3>의 내용과 같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REP1이 1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 Adj GAAP ETR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관심변수인 REP2, REP3, REP4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표본의 선정 또한 REP1의 분석을 위한 표본선정과 동일한 PSM방법으로 1 : 3 매칭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8>은 관심변수 REP1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REP1)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1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1유형		2유형		3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Dependent variable :	Long_cash_ETR	Long_GAAP_ETR	Adj_cash_ETR	Adj_GAAP_ETR	CDETR	GDETR
Intercept	0.577** (2.137)	-0.028 (-0.146)	0.081 (0.238)	0.743*** (2.804)	0.117 (0.167)	0.444 (1.183)
REP1	0.024 (1.526)	-0.006 (-0.504)	-0.028 (-1.408)	0.010 (0.654)	-0.014 (-0.335)	-0.002 (-0.106)
SIZE	-0.019** (-1.994)	0.007 (1.111)	0.002 (0.176)	-0.020** (-2.231)	-0.002 (-0.096)	-0.016 (-1.230)
LEV	0.251*** (4.964)	0.125*** (3.517)	-0.358*** (-5.600)	-0.180*** (-3.624)	-0.010 (-0.076)	0.105 (1.487)
GRW	-0.020 (-0.625)	-0.075*** (-3.378)	0.069* (1.728)	0.082*** (2.668)	0.111 (1.366)	0.015 (0.348)
ROA	0.199* (1.658)	0.386*** (4.572)	-0.061 (-0.398)	-0.320*** (-2.717)	0.331 (1.061)	0.078 (0.469)
PPE	-0.109 (-1.564)	-0.092* (-1.871)	-0.009 (-0.102)	0.017 (0.242)	0.083 (0.458)	0.099 (1.020)
INTAN	-0.111 (-0.549)	-0.535*** (-3.778)	-0.121 (-0.473)	0.539*** (2.724)	-0.432 (-0.825)	0.106 (0.378)
FSALE	0.043 (1.519)	0.035* (1.723)	-0.028 (-0.786)	-0.039 (-1.386)	0.006 (0.086)	0.027 (0.678)
PCM	-0.120** (-2.257)	-0.149*** (-4.000)	0.058 (0.865)	0.207*** (3.971)	-0.186 (-1.350)	0.103 (1.398)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 R-square	0.032	-0.035	0.233	0.312	0.032	-0.035
observations	368	368	368	368	368	368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변수정의> Long_cash_ETR=(5년간 법인세부담액/5년간세전이익)*(-1); Long_GAAP_ETR=(5년간 법인세비용/5년간세전이익)*(-1); Adj_cash_ETR=산업·규모조정 3년간 누적 cash_ETR; Adj_GAAP_ETR=산업·규모조정 3년간 누적 GAAP_ETR; CDETR=Cash ETR을 이용하여 측정한 DETR의 산업별·규모별 조정값; GDETR=GAAP ETR을 이용하여 측정한 DETR의 산업별·규모별 조정값; REP1=명성비용 KMAC 산업별 1위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ize=기업규모(=ln(총자산)); Lev=부채

비율(=총부채/총자산); GRW=매출액 성장률(=매출액_t-매출액_{t-1})/매출액_{t-1}; ROA=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PPE=(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 자산)/총자산; INTAN=무형자산/총자산; FSALE=수출비중; PCM=시장지배력(=기업 t-1년도(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매출액-산업평균(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매출액).

Model 1은 종속변수를 Long_cash_ETR의 값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1)을 곱한 값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Model 2는 Long_GAAP_ETR의 값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1)을 곱한 값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3과 Model 4는 3년 누적 산업·규모 조정 cash_ETR과 GAAP_ETR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Model 5, Model 6은 CDETR과 GDETR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별 기업 이미지가 1위인 기업을 나타내는 REP1의 계수값은 음(-)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표 9>는 관심변수 REP2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REP2)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2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1유형		2유형		3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Dependent variable :	Long_cash_ETR	Long_GAAP_ETR	Adj_cash_ETR	Adj_GAAP_ETR	CDETR	GDETR
Intercept	-0.593*** (-4.844)	-0.387*** (-4.366)	-0.195 (-1.283)	0.016 (0.132)	-0.330 (-1.074)	-0.139 (-0.867)
REP2	-0.001 (-0.102)	-0.001 (-0.152)	0.002 (0.174)	-0.010 (-1.081)	-0.010 (-0.416)	-0.015* (-1.720)
SIZE	0.015*** (3.625)	0.004 (1.223)	0.010* (1.912)	0.001 (0.263)	0.009 (0.803)	0.007 (1.340)
LEV	-0.094*** (-3.401)	-0.081*** (-4.009)	-0.145*** (-4.203)	-0.109*** (-4.018)	0.075 (1.072)	-0.102*** (-2.808)
GRW	0.102*** (4.667)	0.081*** (5.155)	0.070*** (2.596)	0.045** (2.131)	-0.021 (-0.386)	-0.035 (-1.210)
ROA	-0.253*** (-4.286)	-0.140*** (-3.269)	-0.145** (-1.977)	-0.077 (-1.331)	0.348** (2.348)	0.175** (2.257)
PPE	0.019 (0.497)	0.061** (2.194)	-0.011 (-0.236)	0.060 (1.583)	0.035 (0.361)	0.029 (0.573)
INTAN	-0.266** (-2.296)	0.087 (1.042)	-0.352** (-2.452)	0.142 (1.252)	-0.019 (-0.067)	-0.071 (-0.465)
FSALE	-0.006 (-0.428)	-0.007 (-0.653)	0.003 (0.158)	0.001 (0.084)	0.039 (1.029)	-0.000 (-0.015)
PCM	0.053** (2.151)	0.118*** (6.631)	0.012 (0.390)	0.110*** (4.575)	-0.099 (-1.598)	-0.025 (-0.782)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 R-square	0.226	0.255	0.098	0.091	0.008	0.019
observations	776	776	776	776	776	776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주2) REP2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8>의 내용과 같음

<변수정의> REP2=명성비용 100대 브랜드에 속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Model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REP2의 계수값이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GDETR로 측정된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에서는 100대 브랜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6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에서는 대부분 REP2의 계수값이 음(-)의 값을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은 KOSPI200에 속한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소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0>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REP3)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3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1유형		2유형		3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Dependent variable :	Long_cash_ETR	Long_GAAP_ETR	Adj_cash_ETR	Adj_GAAP_ETR	CDETR	GDETR
Intercept	-0.597*** (-12.164)	-0.284*** (-7.467)	-0.292*** (-5.351)	-0.120*** (-3.063)	-0.171 (-1.589)	-0.097 (-1.622)
REP3	-0.032*** (-8.287)	-0.005* (-1.739)	-0.023*** (-5.210)	-0.015*** (-4.842)	-0.021** (-2.453)	-0.006 (-1.342)
SIZE	0.016*** (9.104)	0.000 (0.188)	0.014*** (7.040)	0.007*** (4.625)	0.007* (1.864)	0.004* (1.769)
LEV	-0.131*** (-11.708)	-0.108*** (-12.443)	-0.108*** (-8.623)	-0.135*** (-14.995)	-0.090*** (-3.649)	-0.039*** (-2.825)
GRW	0.041*** (4.923)	0.012* (1.887)	0.014 (1.538)	0.016** (2.361)	0.044** (2.450)	-0.003 (-0.313)
ROA	-0.105*** (-4.138)	-0.057*** (-2.903)	0.024 (0.857)	-0.094*** (-4.641)	0.175*** (3.155)	0.063** (2.057)
PPE	0.071*** (4.478)	0.082*** (6.701)	0.046*** (2.634)	0.080*** (6.333)	0.008 (0.240)	0.053*** (2.771)
INTAN	0.369*** (4.882)	0.320*** (5.474)	0.477*** (5.678)	0.199*** (3.298)	0.259 (1.566)	-0.099 (-1.082)
FSALE	-0.069*** (-11.577)	-0.024*** (-5.089)	-0.021*** (-3.216)	-0.014*** (-2.888)	0.013 (0.969)	0.017** (2.359)
PCM	0.012*** (5.159)	0.016*** (9.128)	0.005* (1.882)	0.010*** (5.178)	-0.005 (-0.984)	-0.003 (-1.216)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 R-square	0.310	0.168	0.085	0.151	0.049	0.031
observations	5,331	5,331	5,331	5,331	5,331	5,331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주2) REP3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8>의 내용과 같음

<변수정의> REP3=명성비용 KOSPI 200에 신규 편입된 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Model 6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관심변수인 KOSPI200 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REP3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KOSPI200에 속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1>은 경실련의 좋은 기업상 선정 정량 평가 점수가 상위 50위 이상인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REP4)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4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1유형		2유형		3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Dependent variable :	Long_cash_ETR	Long_GAAP_ETR	Adj_cash_ETR	Adj_GAAP_ETR	CDETR	GDETR
Intercept	-0.250*** (-4.619)	-0.122*** (-2.783)	-0.075 (-1.296)	-0.018 (-0.406)	-0.097 (-0.886)	-0.024 (-0.347)
REP4	-0.012** (-2.181)	-0.015*** (-3.411)	-0.009 (-1.528)	-0.012*** (-2.624)	-0.006** (-2.037)	-0.002 (-0.288)
SIZE	0.002 (0.971)	-0.005*** (-3.411)	0.005** (2.497)	0.002 (1.031)	0.004 (1.134)	0.002 (0.874)
LEV	-0.097*** (-6.183)	-0.110*** (-8.585)	-0.079*** (-4.651)	-0.082*** (-6.200)	-0.032 (-1.019)	-0.036* (-1.776)
GRW	0.056*** (4.268)	0.048*** (4.494)	0.067*** (4.774)	0.046*** (4.204)	0.014 (0.513)	-0.001 (-0.031)
ROA	-0.066** (-1.989)	-0.050* (-1.858)	-0.057 (-1.600)	-0.073*** (-2.625)	0.263*** (3.919)	0.056 (1.327)
PPE	0.060*** (2.797)	0.094*** (5.381)	0.018 (0.767)	0.051*** (2.833)	-0.079* (-1.840)	0.005 (0.168)
INTAN	0.065 (0.564)	0.453*** (4.831)	0.074 (0.594)	0.191** (1.974)	0.047 (0.200)	-0.155 (-1.053)
FSALE	0.027*** (2.924)	0.016** (2.102)	0.023** (2.261)	0.015* (1.933)	-0.014 (-0.735)	-0.000 (-0.018)
PCM	0.011*** (4.753)	0.012*** (6.432)	0.007*** (2.799)	0.006*** (2.919)	-0.006 (-1.225)	-0.002 (-0.794)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 R-square	0.145	0.158	0.037	0.044	0.005	-0.003
observations	2,620	2,620	2,620	2,620	2,620	2,620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주2) REP4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8>의 내용과 같음

<변수정의> REP4=명성비용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Index 상위 50위권 기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정의지수 상위 50위 기업을 나타내는 관심변수 REP4의 계수값은 Model 1과 Model 2는 각각 5%와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공격적 조세회피를 3년 누적 산업·규모 조정 GAAP ETR로 분석한 Model 4의 경우 관심변수인 REP4의 계수값이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Model 5의 분석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Model 3과 Model 6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석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4유형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2>는 산업별 기업 이미지가 1위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공격적 조세회피 기업에 속할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로짓분석(REP1)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1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4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ependent variable :	dum_cash_ETR	dum_GAAP_ETR	dum_CDETR	dum_GDETR
Intercept	-22.698* (-1.794)	-61.556 (-1.582)	-5.084 (-0.687)	0.448 (0.060)
REP1	0.530 (0.777)	1.583 (0.890)	-0.034* (-1.819)	-0.292 (-0.657)
SIZE	0.789* (1.794)	1.700 (1.405)	0.181 (0.711)	-0.088 (-0.339)
LEV	-1.820 (-0.909)	4.822 (1.000)	2.144 (1.489)	2.444* (1.790)
GRW	3.471*** (2.753)	18.910*** (3.050)	0.601 (0.664)	0.773 (0.882)
ROA	-12.167** (-1.970)	-90.126*** (-3.076)	-6.699* (-1.756)	-7.755** (-2.167)
PPE	7.816** (2.109)	25.529** (1.985)	1.457 (0.790)	2.575 (1.357)
INTAN	-1.847 (-0.235)	46.961** (2.441)	1.380 (0.238)	3.614 (0.658)
FSALE	0.106 (0.084)	13.749** (2.366)	0.842 (1.124)	0.309 (0.397)
PCM	0.494 (0.250)	16.364*** (2.673)	-0.027 (-0.015)	-1.457 (-0.821)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Pseudo R-square	0.443	0.681	0.210	0.164
observations	301	202	354	356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변수정의> dum_cash_ETR=Long cash 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quintile) 중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dum_GAAP_ETR=Long GAAP 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quintile) 중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dum_CDETR=CD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quintile) 중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dum_GDETR=GD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quintile) 중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REP1=명성비용 KMAC 산업별 1위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ize=기업규모($=\ln(\text{총자산})$); Lev=부채비율($=\text{총부채}/\text{총자산}$); GRW=매출액 성장률($=\text{매출액}_t - \text{매출액}_{t-1} / \text{매출액}_{t-1}$); ROA=총자산이익률($=\text{당기순이익}/\text{기초총자산}$); PPE=(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 자산)/총자산; INTAN=무형자산/총자산; FSALE=수출비중; PCM=시장지배력($=\text{기업 } t-1\text{년도}(\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text{판매비와 관리비}) / \text{매출액} - \text{산업평균}(\text{매출액} - \text{매출원가} - \text{판매비와 관리비}) / \text{매출액}$).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Model 3은 REP1의 계수값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Model 4에서는 REP1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의 부호를 나타냈으며 Model 1과 Model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은 100대 브랜드 제품을 보유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 기업에 속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m_cash ETR과 dum_GDETR을 종속변수로 한 Model 1과 Model 4에서 REP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Model 2와 Model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KOSPI200에 속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공격적 조세회피 기업에 속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Model 3을 제외한 Model 1,2,4에서 모두 관심변수인 REP3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경제정의지수가 상위 50위에 속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공격적 조세회피 기업에 속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Model 2와 Model 3에서 관심변수인 REP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정의지수가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공격적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하여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12) Model 1의 REP1의 Odds Ratio는 0.9664로 산업별 기업 이미지가 1위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기업에 속할 가능성이 3.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로짓분석(REP2)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2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4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ependent variable :	dum_cash_ETR	dum_GAAP_ETR	dum_CDETR	dum_GDETR
Intercept	-12.940*** (-2.903)	-5.984 (-0.955)	-1.648 (-0.483)	-0.053 (-0.015)
REP2	-0.930*** (-2.924)	-0.575 (-1.029)	-0.305 (-1.165)	-0.626** (-2.149)
SIZE	0.433*** (2.812)	0.080 (0.373)	0.050 (0.420)	-0.027 (-0.221)
LEV	-2.004** (-2.117)	-0.138 (-0.092)	-0.150 (-0.197)	-0.362 (-0.430)
GRW	1.097* (1.674)	2.124** (2.361)	1.377** (2.414)	-0.892 (-1.148)
ROA	-4.967** (-2.465)	-7.771** (-2.196)	-3.401** (-1.967)	-0.539 (-0.307)
PPE	-1.286 (-0.971)	1.190 (0.633)	-0.404 (-0.373)	0.520 (0.437)
INTAN	-2.606 (-0.681)	-2.060 (-0.276)	3.697 (1.247)	0.596 (0.175)
FSALE	-0.032 (-0.066)	0.724 (1.034)	0.370 (0.884)	-0.287 (-0.631)
PCM	-2.057** (-2.205)	4.778*** (4.447)	-0.787 (-0.971)	-4.139*** (-3.374)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Pseudo R-square	0.236	0.303	0.105	0.187
observations	690	560	771	764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주2) REP2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12>의 내용과 같음

<변수정의> REP2=명성비용 100대 브랜드에 속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표 14〉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로짓분석(REP3)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3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4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ependent variable :	dum_cash_ETR	dum_GAAP_ETR	dum_CDETR	dum_GDETR
Intercept	-4.509*** (-3.543)	0.807 (0.478)	0.776 (0.661)	-4.577*** (-3.755)
REP3	-0.448*** (-4.357)	-0.419*** (-3.239)	-0.066 (-3.248)	-0.205** (-2.168)
SIZE	0.172*** (3.670)	-0.140** (-2.318)	-0.078* (-1.807)	0.103** (2.322)
LEV	-2.042*** (-7.048)	-1.018*** (-2.773)	-0.684*** (-2.599)	-0.452* (-1.665)
GRW	1.405*** (6.834)	0.352 (1.317)	0.529** (2.754)	0.940*** (4.990)
ROA	-8.129*** (-9.656)	-5.061*** (-5.136)	-4.337*** (-6.501)	-5.033*** (-7.293)
PPE	-0.347 (-0.815)	-0.815 (-1.571)	0.234 (0.627)	0.235 (0.611)
INTAN	10.966*** (5.857)	6.867*** (2.615)	3.465* (1.933)	0.966 (0.540)
FSALE	-1.392*** (-8.763)	0.723*** (3.849)	0.522*** (3.867)	0.089 (0.620)
PCM	0.139* (1.903)	0.572*** (5.385)	-0.020 (-0.355)	-0.048 (-0.859)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Pseudo R-square	0.284	0.156	0.124	0.094
observations	5311	5228	5284	5331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주2) REP3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12>의 내용과 같음

<변수정의> REP3=명성비용 KOSPI 200에 신규 편입된 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표 15〉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로짓분석(REP4)

$$TAXAGG_{i,t} = \alpha_0 + \beta_1 REP4_{i,t-1}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ROA_{i,t} + \beta_6 PPE_{i,t} + \beta_7 INTAN_{i,t} + \beta_8 FSALE_{i,t} + \beta_9 PCM_{i,t} + \sum IND + \sum YEAR + \varepsilon_{i,t}$$

	4유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ependent variable :	dum_cash_ETR	dum_GAAP_DETR	dum_CDETR	dum_GDETR
Intercept	-1.897 (-1.444)	1.694 (0.951)	-1.531 (-1.289)	-0.831 (-0.665)
REP4	-0.115 (-0.825)	-0.402** (-2.166)	-0.032** (-2.155)	-0.021 (-0.167)
SIZE	0.008 (0.160)	-0.234*** (-3.857)	0.019 (0.444)	0.007 (0.166)
LEV	0.818** (2.207)	-0.251 (-0.536)	0.865*** (2.613)	0.253 (0.717)
GRW	1.202*** (4.093)	1.578*** (4.693)	-0.185 (-0.641)	0.008 (0.027)
ROA	-6.294*** (-6.468)	-4.916*** (-4.417)	-4.337*** (-5.154)	-5.629*** (-6.070)
PPE	-0.274 (-0.529)	2.444*** (3.915)	-1.491*** (-3.170)	-0.687 (-1.399)
INTAN	-2.108 (-0.728)	5.474* (1.719)	2.999 (1.299)	-2.240 (-0.849)
FSALE	0.247 (1.106)	0.342 (1.261)	-0.095 (-0.470)	-0.179 (-0.825)
PCM	0.223*** (3.266)	0.224*** (2.789)	-0.003 (-0.069)	0.035 (0.698)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Pseudo R-square	0.086	0.098	0.040	0.042
observations	2620	2615	2620	2620

주1) *** : 1%, ** : 5% * : 10% 미만의 유의성을 나타냄

주2) REP4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12>의 내용과 같음

<변수정의> REP4=명성비용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Index 상위 50위권 기업.

V.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기업의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명성비용의 측정치는 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선정하는 KMAC 산업별 1위 평판 기업과 브랜드스탁에서 선정하는 100대 브랜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코스피 200에 진입한 기업 그리고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상위 50위 기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10개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명성이 높은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명성비용의 비세금비용으로서의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KMAC 산업별 1위 기업(REP1)에서는 4유형인 dum_CDETR에서만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3유형(CDETR, GDETR)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100대 브랜드 제품 보유 기업(REP2)의 경우 종속변수가 3유형 중 GDETR과 4유형 중 dum_cash_ETR과 dum_GDETR에서 각각 10%,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코스피 200 기업(REP3)의 경우 3유형 중 GDETR과 4유형 중 dum_CDETR을 제외한 모든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지수 상위 50위 기업(REP4)의 경우는 1유형(Long_cash_ETR, Long_GAAP_ETR)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2유형 중 Adj_GAAP_ETR과 3유형 중 CDETR 그리고 4유형 중 dum_GAAP_ETR, dum_CDETR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유형 중 1유형과 4유형 중 dum_CDETR과 dum_GDETR으로 측정한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으며 cash_ETR을 이용한 측정치와 GAAP_ETR을 이용한 측정치 간의 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명성비용을 산업별 1위 평판 기업, 100대 브랜드 자료, 경제정의지수 등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공격적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독립변수인 명성비용과 종속변수인 공격적 조세회피를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는 반면에, 실증결과가 모든 변수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주요 변수들의 대용치로 사용된 다양한 측정치들의 측정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정치의 측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가 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참고문헌

- 김임현 · 김진수. 2019. “브랜드가치와 조세회피”. 회계정보연구 제37권 제3호 : 259–280.
- 박시훈 · 김갑순. 2019.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 세무회계저널 제20권 제6호 : 191–218.
- 박종일 · 지승민. 2016. “세무보고 공격성이 감사인이 인지한 기대감사시간, 실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 389–434.
- 선우희연 · 이유진 · 최종학. 2017. “감사인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피감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성향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6권 제5호 : 33–68.
- 최보람 · 이정미. 2014. “기업평판과 조세회피, 기업가치의 관계”. 세무학연구 제31권 제3호 : 149–175.
- Akdoğu, E., and MacKay, P. 2012. Product markets and corporate investment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6(2) : 439–453.
- Austin, C., and R. Rego. 2017. An examination of reputational costs and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firms with valuable consumer brand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9(1) : 67–93.
- Balakrishnan, K., Blouin, J., and Guay, W. 2012. Does Tax Avoidance Reduce Corporate Transparency. Working Paper,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 Blouin, J. 2014. Defining and measuring tax planning aggressiveness. *National Tax Journal* 67(4) : 875.
-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 41–61.
- Christensen, H., E. Floyd, L. Liu and M. Maffett. 2015. “The Real Effects of Mandatory Non-Financial Disclosures in Financial Statemen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 Donohoe, M. P., and Robert Knechel, W. 2014. Does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influence audit pricing?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1(1) : 284–308.
- Dyreng, S. D., Hanlon, M., and Maydew, E. L. 2008.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 61–82.
- Frank, M. M., Lynch, L. J., and Rego, S. 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2) : 467–496.
- Graham, J. R., and Tucker, A. L.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 563–594.
- Guenther, D. A., Matsunaga, S. R., and Williams, B. M. 2013. Tax avoidance, tax aggressiveness, tax risk and firm risk. Working Paper : 305–360.
- Guenther, D. A., Matsunaga, S. R., and Williams, B. M. 2017. Is tax avoidance related to firm

- risk? *The Accounting Review* 92(1) : 115–136.
- Hanlon, M., and Heitzman, S.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 127–178.
- Hanlon, M., and J. Slemrod. 2009. What does tax aggressiveness signal?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s to news about tax shelter involv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2) : 126–141.
- Kubick, T., D. Lynch, M. Mayberry, and T. Omer. 2015. Product market power and tax avoidance : Market leaders, mimicking strategies, and stock returns. *The Accounting Review* 90(2) : 675–702.
- Lennox, C., Lisowsky, P., and Pittman, J. 2013. Tax aggressiveness and accounting fraud.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1(4) : 739–778.
- Lietz, G. M. 2013. Tax avoidance vs. tax aggressiveness : A unifying conceptual framework. Working Paper.
- Lisowsky, P. 2010. Seeking shelter : Empirically modeling tax shelter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 85(5) : 1693–1720.
- Lisowsky, P., Robinson, L., and Schmidt, A. 2013. Do publicly disclosed tax reserves tell us about privately disclosed tax shelter activ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1(3) : 583–629.
- Nguyen, A. 2015. Product Market Advertising and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Working Paper.
- Rego, S. O., and Wilson, R. 2012. Equity risk incentives and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0(3) : 775–810.
- Scholes, M., and M. Wolfson, M. Erickson, M. Hanlon, E. Maydew and T. Shevlin, 2014,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Hall.
- Wilson, R. J. 2009.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84(3) : 969–999.

Tax Aggressiveness and Reputational Costs

Si-Hun Park* · Kap-Soon K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reputation cost using tax aggressive measures. The concept of tax avoidance includes not only the tax reduction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be illegal but also all other legal choices, including the consequences of tax benefits. As a result, prior studies have tried to distinguish aggressive tax avoidance from normal and legal tax reductions using various measures including tax shelter, UTB, and ETR.

In this study, we tested its effect on the reputation cost, one of the non-tax costs of the tax aggressive. As tax aggressive is likely to be criticized by the public due to its possible illegality and immorality, a company's reputation can be flawed ; therefore, we assumed that the higher the reputation of a company, the less likely it will be to make aggressive choices to avoid tax.

Using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s from 2003 to 2019, we found that the reputable companies proxied by the highest scored firms in the industry image survey by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ing (REP1), the companies that owned 100 brand products selected by Brandstock (REP2), the companies included into the KOSPI 200 (REP3), and the top 50 businesses in the economic justice index announc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Justice (REP4) showed less aggressive tax avoidance. Specifically, The analysis showed that aggressive tax avoidance levels were related to significant negative (－) in companies with top 100 brand products, those included in the KOSPI 200, and those in the top 50 in the economic justice index.

This shows that companies with a high reputation are passive in tax aggressive. However, some of the tax aggressiveness measures used in this study are the results, so analytical caution is needed.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 of reputation cost on aggressive tax evas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nalyzed as a measure of the various cost of fame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ck of domestic empirical research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ost of fame. However, our new measure has some limitations that originated from the effective tax rate and the fundamental in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benefits from the archival accounting data.

〈Key words〉 Tax Aggressiveness, Decremental Effective Tax Rate, Reputational Costs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Dongguk University-Seoul, psh82@dongguk.edu, First Author.

** Professor, Business School, Dongguk University-Seoul, kks@dongguk.edu, Corresponding Author.